

*** 문화재 지정 근대건축 중명전(重明殿)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tilization of Jungmyungjeon of Modern Construction designated as the cultural properties

조신혜* / Cho, Shin-Hye

오인욱** / Oh, In-Wook

Abstract

Recently our country highly evaluate cultural value of modern construction. Before and after Japanese imperial period, diplomatic equipment, commerce equipment and brand-new modern construction of Japan and Western came into our country coercively. Especially, modern construction placed in center of the city, as previously stated, was a construction field of historical disgrace. So it leaves alone or transforms to high technology because of well located. Selctive reception of the past makes difficult to know about rightful modern, furthermore it is difficult to expect rightful future.

Accordingly, I write this paper for the purpose of presenting the space application blueprint of 'Jung Myung Jeon' of modern construction designated as the cultural properties in Seoul. According to the project, 'Jung Myung Jeon' will do a role as the keyword which is important connects a past and a present time it presents. Then modern construction 'Jung Myung Jeon' which has a culture value will develop continuous with the city.

키워드 : 근대건축, 중명전, 북카페, 근대건축물 활용방안

Keywords : Modern Architecture, Jongmyongjeon, Book cafe, Utilization of Modern construc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근대건축은 일제시대(1910~1945)전후 강압에 의한 개국으로 일본과 서구의 외교시설·상업시설 등 새로운 근대건축의 유입으로 전개 되었다. 이 시기의 건축물들이 문화재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근대건축 전반에 걸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문화재 관리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범주가 확장됐음에도 아직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근대건축물도 제도의 혜택을 모두 받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특히,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근대건축물들은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치욕의 현장이었기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나, 도심이라는 위치적 특수성에서 오는 경제우위에 밀려 문화자원적 가치가 포기되어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렇듯 과거에 대한 선별적 수용은 올바른 현대를 알기 어렵게 하고, 나아가 올바른 미래를 기대 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에 위치한 근대건축물 '중명전'의 공간활용 계획안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키워드로서의 역할을 제시하여,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근대건축물 '중명전'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나아가 도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근대건축물의 분석과 공간활용 계획의 제시로 문화재지정 건축물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 근대건축물은 1983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3호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1-1의 중명전(重明殿)으로 한정 지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중명전 현장의 실내·외부 사진촬영과 실측을 통해 분석하였고, 문헌상의 기록들로 중명전의 역사성을 고찰하고 동시에 분석하였으며, 문화재 지정 건축물의 실내 디자인 기법은 우리나라와 개항 시기가 비슷하며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도출한 것을 토대로 계획하여 '중명전'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 정회원,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

** 명예회장,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 본 논문은 경원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진행되었음

2. 근대건축물 증명전의 현황과 보전 당위성

2.1. 한국의 근대 실내건축

1876년¹⁾ 개항이 시작되면서 한국 근대건축과 실내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양식과 방법에 의해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 시대 이후의 건축과 실내는 신문화, 신문명의 엄청난 세력에 의해 생겨난 결과물이었다. 새로운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의해 새로운 건축물과 실내가 등장했으며 신부, 선교사, 외교관들에 의해 실내장식과 가구들이 이입되었는데 양풍(洋風) 스타일이 지배적이었다. 신건축을 배운 외국인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가구나 소품들도 필요에 따라 수입되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주도적인 영향을 준 것은 일본이었으나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청국 등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양식이 공존 하였다. 이러한 건축사적 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근대건축물이 가지는 표현특성은 현재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은 일제 강점기 이후 20세기 근대건축의 현장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암울했던 과거사의 잔해로 치부되거나 현대식 재건축이라는 명목으로 근대건축물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근대건축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그 활용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2. 증명전의 역사적 고찰과 보전 당위성



<그림 1> 1906년 을사보호조약을 강요당했던 증명전의 옛 모습

(1) 증명전의 역사적 고찰

‘증명전’은 1896년 지금의 서울시 중구 정동에 ‘무거운 빛의 전’이란 뜻으로 고종황제가 건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도서관이라는 건축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궁궐의 도서관(King’s Library)이었던 이곳은 1904년 경운궁에 불이나 고종황제의 피신처가 되었고 이때부터 증명전은 고종황제가 외국인들을 접견하고 연회를 베푸는 장이 되었다.

1)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의 체결시기

이듬해인 1905년 11월 18일, 바로 이곳에서 을사보호조약²⁾이 강제로 맺어진 것이다. 증명전은 우리나라의 외교권과 재정권을 모두 박탈당하는 치욕스러운 역사의 현장이었던 것이다.

<표 1> 증명전 연혁³⁾

연도	연혁
1900	증명전 준공, 당시 ‘수옥헌’이라 불림
1904. 4	경운궁의 화재로 고종이 증명전으로 거처를 옮김
1905. 11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강제체결
1906. 2	증명전에 일본 통감부 개설
1907. 1	황태자가 운비를 맞아 가례를 올렸을 때 외국 사신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
1907. 4	고종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파견, 접견
1915	경성구락부(외교클럽)의 사교장으로 쓰이기 시작함
1925. 3	화재이후 다시 재건하여 몇 차례 보수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음
1960	이때까지 경성구락부에 임대하여 사용됨
1963	귀국한 영와 이은(李垠), 이방자 여사에게 증명전을 거처로 기증(소유자 변경)
1976. 5	민간에게 처음 소유권을 양도한 후 몇차례 소유주가 바뀜
1977. 4	경한산업 주식회사 소유
1983. 11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3호로 지정
1998. 12	정한개발 주식회사 소유
2003. 5	재단법인 정동극장 소유

(2) 증명전의 보전 당위성

역사적으로 건축사적으로 ‘최초’ 라는 타이틀이 몇 개씩 붙여진 이곳은 우리의 감추고 싶은 역사를 고스란히 지켜본 이유로 국가나 소유한 시·도의 차원에서 크게 관심 받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에 위치하는 위치적 특수성에서 오는 경제성의 논리에 밀려 그것이 가지는 문화자원적 가치가 포기되어진 채 여전히 방치되어진 상태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울시는 지금의 ‘증명전’을 경희궁의 서울역사 박물관, 그리고 서소문동의 시립미술관(옛 대법원)과 증명전 입구에 있는 정동극장과 연결하여 정동지역의 문화적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모습으로 활용되어질 때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적 괴리를 균형있게 바로잡아줄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2.3. 증명전의 현황

1925년의 화재로 현재의 증명전은 외벽 및 복도와 계단실, 지하공간에서 그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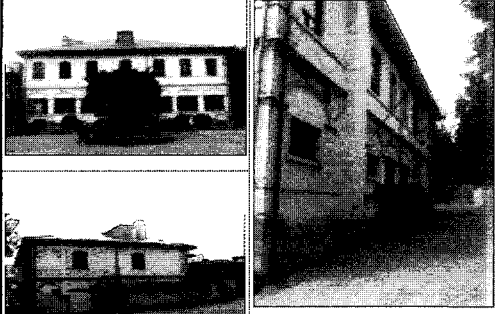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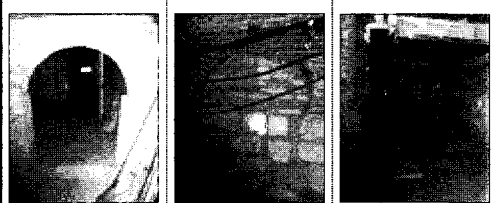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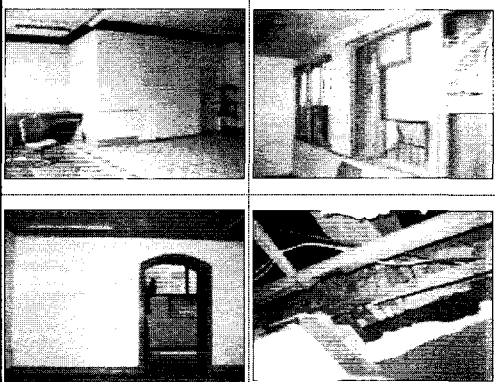

2)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 :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

3)증명전 복원보수공사 보고서, 중구청 2004

<표 2> 증명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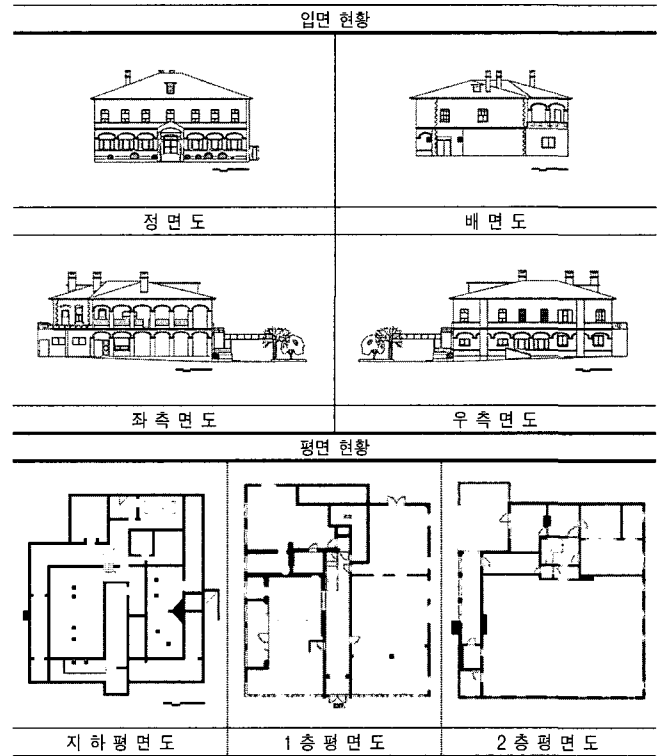
	내 용
건 물 명	증명전(重明殿)
지 정 번 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3호
지정년월일	1983년 11월 11일
시 대	1900년 경 준공, 1925년 경 보수, 조선후기의 건물
원 설 계	러시아인 사바잔(A. I. S. Sabatin)
규 모·양 식	지상 2층, 연면적 449.42㎡(135.95평), 르네상스풍(風)
건립당사용도	궁궐도서관(King's Library)
주 요 시 설	지하 -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등으로 추정 1층 - 서고, 사무실, 귀빈실, 화장실 등으로 추정 2층 - 열람실, 서고, 사무실 등으로 추정
소 재 시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11
소 유 자	문화관광부 산하 정동극장

<표 3> 증명전의 현재 모습

층	현재 모습
외 관	
지 하	
1 층	
2 층	

증명전은 연면적 449.42㎡(135.95평), 지하1층 지상2층의 조적식 건축물로 정면 중앙에 현관을 두고, 그 상부 지붕의 정면과 후면 중앙에 지붕 돌출창(dormer)을 두었다. 창문은 1층에는 평아치(flat arch) 창이고, 2층에는 세그멘탈아치(segmental arch) 창으로 이루어졌는데, 1층 창문위에는 장식아치를 두었다. 또 1층과 2층 벽면 사이에는 장식 벽돌 수평띠를 둘렀다. 현관 내부 바닥은 아름다운 모자이크 타일을 깔았으며, 2층 서쪽의 발코니부분이 서양식 건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4> 현황 도면(2006. 03)



3. 문화재 지정 근대건축물의 공간활용 방법에 관한 사례연구

3.1. 문화재 지정 건축물의 활용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근대건축물들이 생존하려면 우리시대가 원하는 문화재로서의 역할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그 조건들을 살펴보면, 근대건축물은 단순히 오래된 옛 건물이 아닌 문화자원으로 인식되어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력 향상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근대건축물들은 보전의 개념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 앞서 말한 요구들을 만족 시킬 때에 진정한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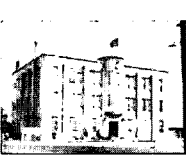

문화재로 지정된 근대건축물의 활용방안 계획은 '문화재 수리 표준 시방서'에 준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문화재 수리시에는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해야하

며 그 주변 환경도 보존해야 한다. 보장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기존의 재료가 변경된 것이거나 당해 문화재의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을 할 수 있다. 대상건축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 절차와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존해야 한다.4)

3.2. 문화재 지정 근대건축물의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

문화적 자원으로 인식되는 근대건축물을 리노베이션 하여 건축공간의 기능을 회복시킨 사례는 현재 국내·외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근대건축물은 다양한 용도로 유지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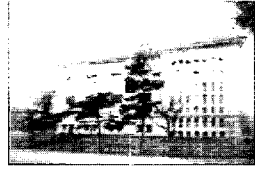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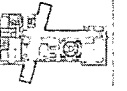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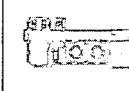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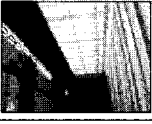

<표 5> 서울시에 위치한 문화재 지정 근대건축물의 공간활용 사례

명동성당	유형분류	사적 제258호		
	원 설계	코스트(Eugene Joan George Coste)		
	위 치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1-8		
	용도 및 이름			
	계속형 활용			
	건립당시	-	현재	
	명동성당	-	명동성당	
				
	1898년의 모습		2002년의 모습	
	유형분류	사적 제253호		
원 설계	러시아인 사바틴(A. I. S. Sabatin)			
위 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5-1			
용도 및 이름				
공개형 활용				
건립당시	-	현재		
구 러시아 공사관	대부분 손실	시민공원		
				
1896년의 모습		2006년의 모습		
유형분류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31호			
원 설계	일본 요코하마건축소 원 설계			
위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39			
용도 및 이름				
전문형 활용				
건립당시	-	현재		
일민미술관	일민문화관	일민미술관		
				
1927년 모습		2002년 모습		

4)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 0100일반공통사항(2005.01개정)에 의거하여 기술하였다.

는데, 그 활용 방법의 형태를 크게 나누어보면, 건물의 용도를 바꾸지 않고 종래의 모습 그대로 계속 활용하는 '계속적 활용' 방법, 당초의 용도를 변화시켜 다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전용형 활용'방법,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고 있지 않던 건물과 여러 가지 용도변경을 거쳐 온 건물을 새롭게 건립 당시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활형 활용'방법의 세 가지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일시적인 행사 및 공연 등에 사용되는 '이벤트형 활용'방법, 건물의 모두 또는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공개형 활용'방법이 있다.5)

<표 6> 공간 디자인 수법 사례분석

동경 국제어린이도서관	유형분류	동경도가 선정한 역사적 건조물(建造物)로 지정		
	건축가	안도 다다오		
	위 치	일본 도쿄도 타이토우구 우에노코우엔12-49		
	용도 및 이름			
부활형 활용				
건립당시	리노베이션 전	리노베이션 후		
제국도서관	국립국회도서관의 지부(支部)	국제어린이도서관		
역사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06년에 제국도서관으로서 창건 1999년까지 - 국립국회도서관의 지부(支部) 우에노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2000년 1월 1일을 기하여 국제어린이도서관이라는 새로운 명칭 2000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일부 개관 2002년 5월 5일 전면 개관하면서 본격적인 어린이도서관으로서 서비스 제공 			
공간 디자인 수법	공간 구성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르네상스 양식의 대표적인 메이지 시대의 서양풍 건축 지하1층+지상3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전+증축 유형 두 개의 유리상자와 하나의 콘크리트박스의삼입(system보완) 	
				
		1층	2층	3층
공간 디자인 수법	실내 디자인 요소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형 보존 	(원형 보존에 가깝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완적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요소 삽입 	(새로운 기능 추가)

5)이주형·장석하, 한국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2권 3호(통권209호), 2006년 3월, p.112

근대건축물의 다양한 활용방법은 앞서 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증명전'의 실내디자인 요소적 측면에서의 계획방법은 우리나라와 개항시기가 비슷하며 다양한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경험을 가진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 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4. 증명전의 실내공간 활용방안

이번 연구에서 다루는 증명전의 실내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는 실시설계의 근간이 되는 기본설계의 단계이다. 역사적 가치를 발현하고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체화한 실제적인 공간을 계획하여 앞으로 도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한다.

4.1. 북카페(Book Cafe)로의 제안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도서관'이라는 증명전의 역사적 의의를 고취시키려면 건축물의 역사성 및 상징적 의미로부터 유도하여 도서관의 기능을 재현할 수 있는 용도로의 활용이 요구되어진다. 하지만 100여년이 흐른 지금의 증명전은 현 시대가 필요로 하는 도서관으로의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이것이 위치한 도심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경제적 가치창출에 대한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도서관의 이미지를 재현함과 동시에 이러한 역사적 가치와 현 시대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북카페'로의 공간 활용을 제안한다.

<표 7>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북카페의 필요공간

열람공간	서가, 개인 열람대, 소파공간, Tea Table
문화교육공간	세미나실, 멀티미디어실, 전시실
편의공간	커피 및 음료 판매공간, 인터넷 사용공간, 아트샵, 복습, 화장실

4.2. 증명전의 보전 및 복원 범위 설정

문화재 지정 건축물의 활용방안 계획에 있어서는 보전⁶⁾ 대상 건축물의 보존범위와 복원범위 설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헌자료에 비추어 현재의 증명전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계획을 전개한다.

6)보전(Conservation)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수용하여 유지·발전한다는 개념으로서 보존은 물론 활용의 가치를 부여한 복원·보수·개량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보존(Preservation)은 현재의 문화유산이 과거에 만들어질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여 존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중요한 건축물을 유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소극적인 방법이다.

복원(Restoration)은 파손된 부분을 손질하고 첨가된 것을 제거하여 원래의 상태나 위치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문화유산을 당초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1) 보존 범위 설정

첫째, 외관 보전을 기본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관을 건립 당시의 사진·문헌과 비교해 보면 아치와 외벽(정면, 우측면, 배면)의 형태는 10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거의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평면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한다. 조적식 건물이기 때문에 방과 방을 나누는 벽 자체가 구조체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현재 설치된 가벽을 제거한 후 기본 골격은 그대로 한다.

셋째, 지하공간의 모습은 보존을 뛰어넘어 실내공간을 복원할 때에 마감재·천장형태 등의 근간으로 삼는다. 건립 당시 적벽돌 건물이었다는 문헌상의 기록으로 보아 현재의 지하공간은 가장 훼손이 적은 곳임을 짐작할 수 있다.

넷째, 서양식 건축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2층의 발코니 공간은 공간 유지 및 확장을 통해 리노베이션의 성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

다섯째, 앞에서 분류한 디자인 요소중에서 원형유지의 항목에 해당하는 타일·몰딩·아치의 보전과 형태적 특성을 살린 적극적 활용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2) 복원범위 설정

첫째, 창틀과 창문을 원형으로 복원해야 한다. '증명전'의 옛 모습과 비교하면 아치형태 그대로 창이 들어가 있던것과는 달리 현재에는 아치 아래에서 직사각형의 창문 프레임까지 벽돌로 마감되어져있다. 원형에 대한 자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그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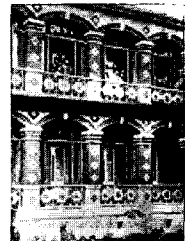
<그림 2> 옛 창문



<그림 3> 현재 창문

둘째, 외벽의 좌측면의 복원 반드시 필요하다. 1층과 2층의 아치와 실내·외의 경계가 모호한 복도 공간의 복원을 통해 앞으로의 사용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충분한 미적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비록 '증명전'의 서쪽 외벽의 사진자료는 찾을 수 없었지만, 설계자 사바틴⁷⁾의 작품인 러시아 공사관의 복도 모습 <그림 8>러시아공사관을 통해 르네상스풍의 아름다움을 유추해 낼 수 있었다.

셋째, 실내의 가벽과 천장의 석고보드 마감 을 제거하여 원형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임대사무실로 사용되었던 흔적들로 그 원형이 가려져 있지만 그 뒤로 옛 모습이 흐릿하게 비춰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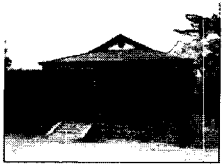


<그림 4> 러시아공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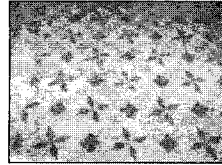
7)사바틴(A.J.Scredin Sabatine), 1890년 러시아 출생, 인천도착(1883.09), 인천해관청사설계(1883), 제창양행설계(1884), 러시아공사관설계(1885), 명동성당신축공사 구조기술자문(1893), 독립문설계(1896), 경운궁양관(정관현·돈덕전·구성현·중명전·환벽정)설계(1900년경), 제물포외국인구락부설계(1901), 손탁호텔설계(1902), 러일전쟁 발발로 귀국(1904.02)

4.3. 증명전 실내공간의 활용 요소 검토

문화재지정 근대건축물의 보전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현재 증명전에서 보전 및 활용 가능한 실내디자인요소를 앞으로의



<그림 5> 정관현의 외관사진



<그림 6> 정관현의 바닥타일

<표 8> 활용가능 실내디자인요소

활용방법에 따른 실내디자인요소의 현황 분류			
	원형보존 필요	시스템적 보완 필요	새로운 요소의 삽입 필요
지하	 벽돌 아치	-	-
	 바닥 타일	 출입문	 실내 벽면
1층	원형보존 필요	시스템적 보완 필요	새로운 요소의 삽입 필요
	 바닥 타일	 1-2층계단	 실내 문틀
	 내부창틀과 몰딩	 창틀	 실내 기벽
	 몰딩 세부	-	-
	 복도 아치	 발코니	 복도 문
2층	-	 발코니 핸드레일	-
	 외벽	-	 서쪽 계단

쓰임에 따라 적절히 분류하는것은 건립당시의 분위기를 되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실내공간을 이루는 기본요소인 바닥·벽·천장은 물론이고, 가구·조명기구·실내조경 및 마감재료와 그 색깔까지 자세히 관찰하여야 한다. 사진자료와 함께 기록하여 계획단계에서의 쓰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100여년이 흐른 지금, 원형의 모습과 흡사한 복원을 이루려면 당시의 건축설계기록이나 사진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자물쇠로 굳게 잠긴 증명전의 옛 기록은 근대건축의 총서인 「조선과 건축」에서도 그 실내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동시대의 다른 건축물과 현재 남아있는 요소들의 고증을 통해 원형보존의 정도를 파악하여 분류할 수 있었다.

외벽에 남아있는 아치나 벽돌의 색깔등은 <그림1>의 건립 당시 증명전의 외관사진과 비교분석 하였고, 실내의 벽체나 공간의 분할은 가장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하공간의 현재 모습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화재에서도 살아남았을것으로 추정되는 1층 바닥의 타일은 동시대(1900년) 동일 건축가에 의해 건립된덕수궁 정관현⁸⁾의 그것과 비교하여 원형을 유지해야할 요소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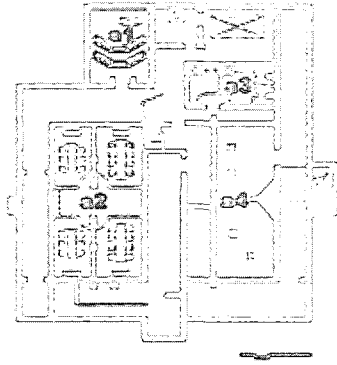
4.4. 북카페의 공간 조닝(zoning)

북카페는 도서열람·카페의 열람기능 외에도 토론·회의·프리젠테이션등의 교육적기능 인터넷사용·아트샵·복합등 편의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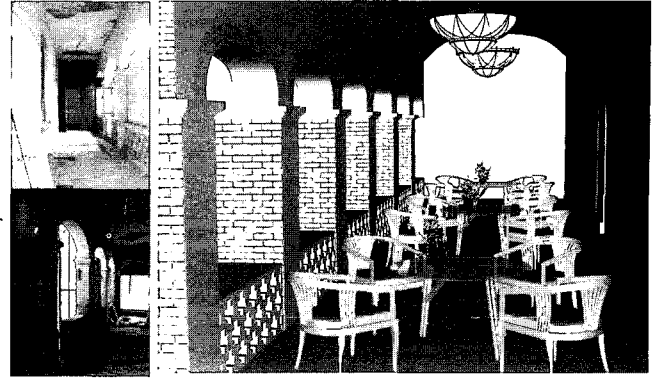
사용자의 사용빈도와 사용시간, 그 행태들을 고려하였을때 건축물의 활용이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증명전은 세계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하공간부터 살펴보면, 채광이 나쁘기 때문에 조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멀티미디어실을 배치 하였으며 현황 조사시 건립당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대상을 반영하여 그 가치를 고조시킬 수 있는 작은 전시실을 배치하였으며 전체 규모가 크지 않은 관계로 세미나실을 지하층에 계획하였다. 1층에는 공간을 통한 특별한 기능을 요구하지 않는 아트샵과 복합을 계획하여 필요에 의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2층은 북카페의 메인홀을 중심으로 실들이 계획되었으며 1,2층의 서측 테라스 부분에는 야외 카페테리아의 기능을 부여하여 근대건축의 건축적 미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8) 덕수궁 정관현(德壽宮 靜觀軒), 사바전 설계, 서울시 종로구 정동 5 덕수궁내, 고종 황제가 다과를 들며 음악을 감상하던 휴게소

- a1. 멀티미디어실
- a2. 세미나실
- a3. W.C.
- a4.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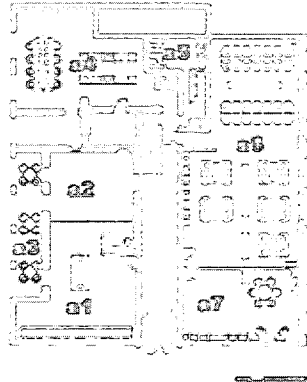


<그림 7> 지하층평면도(계획안)



<그림 11>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야외 카페테리아(左:현황/右:계획안)

- a1. BOOKSHOP
- a2. ARTSHOP
- a3. 야외카페테리아
- a4. 인터넷카페
- a5. W.C.
- a6. 북카페메인홀
- a7. 커피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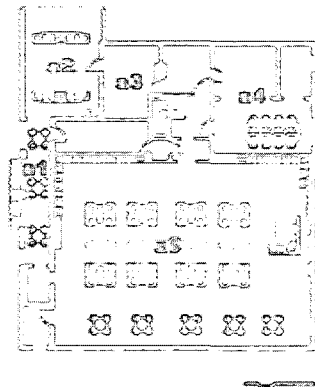


<그림 8> 1층 평면도(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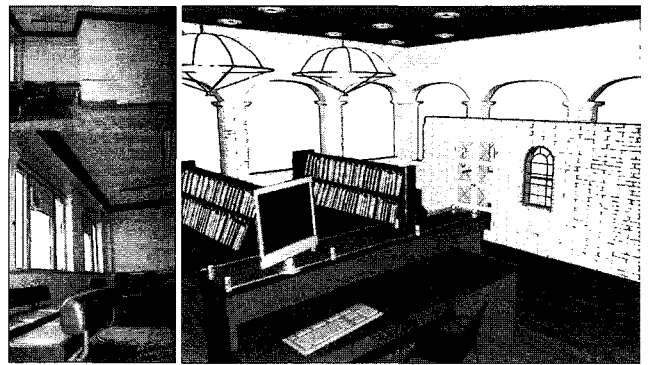


<그림 12> 근대건축물의 직접경험을 유도하는 일반열람실(左:현황/右: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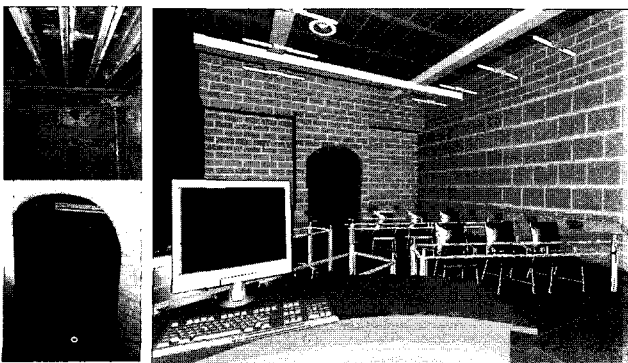
- a1. 야외카페테리아
- a2. 옥외휴게실
- a3. 커피판매
- a4. 인터넷카페
- a5. 북카페 홀



<그림 9> 2층 평면도(계획안)



<그림 13> 도시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BOOKSHOP(左:현황/右:계획안)



<그림 10> 지하공간을 활용한 멀티미디어실(左:현황/右:계획안)

5. 결론

도시속에 위치한 근대건축물의 역사적 ·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여 시민의 방문을 극대화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논문은 문화재 지정 근대건축물인 ‘중명전’을 그 주요대상으로 선택하여 문화 자원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 연구에서 진행한 계획의 과정을 통해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또 다른 근대건축물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을 보면 첫째, 근대건축물이 가지는 의의

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현재 근대건축물들이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이유도 역시 건축물을 바라보는 시점이 극히 좁은 현재의 시각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문화재라는 점에 착안하여 공간계획에 앞서 '문화재 보호법'의 법적 테두리를 인지하여야 한다. 셋째, 유사한 사례분석을 통해 문화재 지정 근대건축물의 활용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문화재 건축물의 보전에 있어서는 보존·복원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현황조사 후 문헌이나 사진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그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다섯째,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결정 후 그에 맞는 공간계획 과정으로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겠다.

재현·회복하는 차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안주영·최상현, 문화재 지정 건축물의 문화자원적 활용을 위한 리노베이션 계획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 제29호, 2001.12
2. 이완건·박언곤, 도심지 근대건축물의 보존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통권 제17호, 2005.03
3. 이완건·조영배, 역사성 보존을 위한 근대건축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 제53호, 2005.12
4. 고주환, 重明殿의 補修技法에 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5.10
5. 김태영, 한국개항기 외인관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연구, 박사논문, 서울대, 1990.08
6. Philip Todidío, Ando Complete Works, TASCHEN
7. 임정수·추용욱·강준모, 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도시설계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05
8. 박홍, 아키와 테리어, 기문당, 1999.04

<접수 : 2006. 8. 31>

<표 9> 증명전의 북카페로의 공간활용

증명전	유형분류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3호			
	원 설계	러시아인 사바핀(A. I. S. Sabatin)			
	위 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1-1			
	용도 및 이름				
전용형 활용					
	건립당시	리노베이션 전	리노베이션 후		
	공필도서관	임대사무실	북카페		
역사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6년 무거운 빛의전이란 뜻으로 고종황제가 건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도서관 건물 · 1905년 11월 18일, 바로 이곳에서 을사보호조약이 강제로 맺어졌다. 증명전은 이 처육의 장소가되었다. · 1983년 11월 11일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3호로 지정 · 1976년 5월 민간에게 처음 사들인 뒤 몇 차례 소유주가 바뀐대, 2003년 5월 재단법인 정동극장 소유 				
공간 디자인 수법	공간 구성적 측면 (上:현황 /下:계획)	지하	1층	2층	·원형 보존 (원형 보존에 가깝다) ·보완적 시스템 ·새로운 요소 삽입 (새로운 기능 추가)

'북카페'는 근대건축물 '증명전'의 공간활용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시민의 생활속에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방치되었던 문화재 지정 건축물의 재생을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연구대상 '증명전'의 역할로서는 본래의 기능을